

Callimachus의 Pinakes 목록 연구

A Study on Pinakes Catalog of Callimachus

정 미 경* · 김 혜 경** · 남 태 우***

Mi-Kyung Jung · Hae-Kyoung Kim · Tae-Woo Nam

차 례

1. 서론	4. Pinakes 목록의 구성 및 체계
2. Callimachus의 생애와 업적	5. 결론
3. Pinakes의 어원 및 내용	• 참고문헌

초 록

본 연구는 서구문명이 얻은 최초의 도서관 목록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Callimachus의 Pinakes 목록에 대한 연구이다. Pinakes 목록은 고대 목록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족 때문에 상세한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Pinakes 목록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동안 연구부진으로 목록사에서 거의 황무지상태였던 고대 목록사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키 워 드

피나케스, 칼리마쿠스, 고대목록, 고대분류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lls25@dreamwiz.co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hae092@dreamwiz.co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Professor, Dept.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Ang University, twnam@cau.ac.kr)

• 논문접수일자 : 2007년 8월 13일
• 게재확정일자 : 2007년 9월 7일

ABSTRACT

This current article is about the Pinakes catalog by Callimachus that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first library catalog in Western civilization. Although many people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Pinakes catalog i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ancient catalog, few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ecause of the lack of groundwork in the field. This research comprehend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 in the field so that it can contribute as one of the groundworks in the field of the ancient catalog.

KEYWORDS

Pinakes, Callimachus, Ancient Catalog, Ancient Classification

1. 서론

인류가 창조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지식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정보의 생산량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시대를 막론하고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방법 및 조직, 서지통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지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여러 유형의 국제적 기준들과 목록법 도구들이 제정되는 등의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준과 도구에 의해 작성되어온 목록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검색 및 접근하고 식별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어온 것이다.

오늘날의 목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능 외에 자원의 선정, 획득 및 접근의 기능이 추가되어 현대적 기능의 목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목록의 형태 또

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른 도서관 자원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목록의 일관성과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정한 원리나 원칙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은 고대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목록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원리나 원칙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현대적인 도서관 목록의 개념은 최초로 목록작성에 대한 조문화된 규칙에 원리를 두었다는 의미에서 19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의 기원은 서양의 경우 B.C. 260~240년경 Alexandria 도서관의 Callimachus가 편찬한 Pinakes에서 비롯되며, 또한 분류사에서도 Pinakes는 기록된 최고(最古)의 분류법으로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록, 서지의 기원을 Pinakes에서부

터 찾아볼 수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Pinakes는 오랫동안 표준 목록으로서, 또한 모든 고문헌 서지의 기초가 되어 이를 기반으로 많은 목록이 작성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재산목록시대에서의 Pinakes를 목록사적인 입장에서 최초의 목록실체로서 인정하면서 오늘날 문헌 목록 작성의 모델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Pinakes는 분류·목록사에서 핵심을 이루어 이후 목록작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도서관사, 정보문화사 및 목록·분류사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극히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inakes의 목록법과 분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Pinakes에 수록된 내용상의 특성, 분류체계와 목록체계를 연구하여 Pinakes가 후대의 목록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Pinakes에 대한 이론정립 및 그 가치를 평가하여 목록사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그동안 향무지와 같은 고대 목록사의 기록을 보충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Callimachus의 생애와 업적

2.1 Callimachus 생애

고전학자들이 Callimachus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Callimachus의 문학적 업적이 전해 내려 오면서 그가 Alexandria 도서관 역사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Pinakes편찬으로 인해 사서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렇듯 Callimachus는 문학사와 도서관사의 두 가지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특히 도서관사 측면에서 Alexandria 도서관의 관장 및 학자사서로서 5-6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역할과 영향 등에서 논의의 중심이 된 인물은 Callimachus였다.

Callimachus에 대한 정확한 전기자료는 많지 않으며, 그의 일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 W. Mair가 그리스 사전인 Suidas를 연구한 자료와 Raymond Irwin의 연구를 토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Callimachus는 BC 305-310년경 고대 그리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Cyrene에서 태어났다. Cyrene는 알렉산드리아 서쪽의 리비아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다. Mair는 Callimachus의 가문이 왕족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 Battus가 Cyrene의 재흥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문구와 Callimachus의 풍자시에서 자신의 조부가 군사분야에서 명성을 떨쳤다고 노래하고 있는 시구 등으로 미루어 그가 상당히 고귀한 가계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Callimachus는 젊었을 때 아테네에서 유학하고 소요학파(Peripatetic, 즉 Aristoteles학파)의 Praxiphanes에 입문하여 여기에서 약 7년간(BC 287-281)을 보냈다. 그 후 그는 Alexandria의 Eleusis에서 문학과 일반학예 학교를 개설하여(혹은 교사로서) Eratosthenes, Apollonius, Aristophanes 같은 유명한 학자를 배출했다.

Callimachus의 왕실입문의 계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주목을 받아 왕실 지식인의 모임에 들어갔고, Ptolemaios II세에게 인정받아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되어 이것으로 인해 Pinakes 목록 120권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Irwin은 Callimachus가 Alexandria 도서관 조수로서 황실에 진입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Alexandria 도서관의 발령날짜는 정확치 않으며 정평있는 자료인 Byzantine 문헌학자의 사전인 Suidas, 12세기 학자인 John Tzetzes, 그리고 POxy. 1241의 파피루스 조각에서도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들로 인해 Callimachus가 도서관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Pinakes를 편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먼저, Callimachus가 도서관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대표적 연구자는 栗野頼之祐이다. 그러나 栗野頼之祐는 조심스럽게 Callimachus를 관장직에서 제외하면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일수도 있다는 연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밖에 Raymond Irwin, Anne Holmes, James W. Thompson, Polly Archuletta 등의 학자들도 栗野頼之祐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 淵田修, 芦屋清은 Callimachus가 초대관장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Alfred Hessel은 Callimachus가 일종의 하급 관리직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는 등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Callimachus의 관장직 논란에 대하여 Mair는 “Callimachus가 도서관장이었다고 하는 해설은 그리스 문헌의 많은 저작에 나오지만, 문헌적인 하나의 자료로 1819년 F. Osann이 로마에서 발견한 15세기경의 양피지 사본에서 Aristophanes의 Plutus에 대한 주석 속에 Callimachus를 ‘사서’로서 표기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것에는 ‘chief’라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결국 관장으로 단정하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Callimachus가 관장은 아니었으나 사서임을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료를 가지고 학자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나 의역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栗野頼之祐와

같은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도서관에서의 Callimachus의 지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Callimachus가 관장이었다고 주장한 연구로는 위에서 언급한 동일한 양피지 사본이 “1839년 A. Meineke에 의해 발표되고 이것이 나중에 Alexandria 도서관 연구의 논문을 쓴 F. Ritechi에 의해 문제제기가 되어 Callimachus는 도서관장이었다”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한 것이고, A. Couat 등 유력한 학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Michael H. Harris, Elmer D. Johnson, K. J. Beloch, Edward Edware, Steven Blake Shubert, Jean Bingen, E. A. Parsons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Callimachus가 관장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allimachus의 관장직에 대한 의견을 달리한 연구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Callimachus가 관장이었는지 혹은 사서였는지 아니면 전혀 도서

관과 관계없는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결국 Callimachus의 도서관장직 수행여부에 대한 사료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도서관에서의 Callimachus의 일생 또한 정확히 알려진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Callimachus의 관장직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Callimachus가 Pinakes를 편찬했다는 업적은 사서의 지위가 아니더라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Callimachus가 관장이 아니라는 가설과 더 나아가 사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Callimachus는 당시 Alexandria 문단의 유명한 시인, 학자였으며 이러한 중심인물이 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학문을 이끌어 갔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K. J. Beloch와 같은 역사가들이 “Callimachus는 BC 260-235/240년까지 도서관장이었다”라고 간주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Callimachus는 시인으로써, 다양한

<표 1> Callimachus의 관장직에 대한 논의

Callimachus의 관장직의 긍정 학자	Callimachus의 관장직의 부정 학자
Edward Edward (1859)	栗野頼之祐 (1942)
K. J. Beloch (1927)	L. S. Thompson (1979)
Alfred Hessel (1955)	Anne Holmes (1980)
Michael H. Harris (1965)	Mostafa El-Abbadi (1991)
Elmer D. Johnson (1967)	Roy MacLeod (2002)
E. A. Parsons (1967)	
Afton M. Miner & A. Garr Cranney (1990)	
Michael H. Harries (1991)	

운율의 시를 쓰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박식한 문헌학자이다. Callimachus의 문학적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한 일화는 Apollonius (Callimachus의 제자, 후에 관장이 됨)와의 문학논쟁이다. Callimachus는 시문학의 진보파로서, 호메로스의 정통파 형식에 반대하여, 호메로스 시는 이미 과거의 것이라고 반론하면서, “새로운 시의 형식은 시대의 정신을 더욱 잘 반영해야 한다. 호메로스류의 정해진 문구의 용만 장대(冗慢長大)한 서사시는 악이고, 전통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생활문화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평하였다. 이것에 대해 Apollonius는 호메로스의 전통을 계승하는 정통파로서, Callimachus의 시론은 공허, 태만한 로망스이고, 로망스 제1호로 불리우는 것에 어울린다고 반론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불화의 근거가 되어, 이로 인해 Apollonius는 그의 스승을 떠나 Rhodes로 이사해 버렸다.

Callimachus는 결국 생애를 프톨레마이오스왕가의 비호 하에 궁정에서 보내고, B.C. 240 /248년경 사망했다.

2.2 Callimachus의 업적

고대 도서관의 한 특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서관은 학술전문도서관임과 동시에 학문연구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곳에 종사하는 관원은 도서의 정리, 대출, 관리만을

담당하는 사무적 내지 기술적인 문헌직이 아니고, 학문 또는 연구적 성격을 띤 문헌직이었다는 점이다. Librarian은 곧 학자 출신이었으며 학자가 종사하는 문헌직이었다. 즉 ‘학자사서, Scholar-librarian’이었던 것이다. ‘Scholar-librarian’이란 어휘를 Sidney L. Jackson도 사용하고 있다.

학자사서(Scholar-librarian)란 Webster 사전의 전문직에 대한 정의의 별항에서 이와 유사한 ‘학문적 전문직’(Learned Profession)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교양교육을 포함한 고도의 아카데믹한 학술연구를 기초로 하는 전문직 즉, 신학, 의학, 법학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직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자사서의 개념은 ‘학술적 전문직’의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즉 학자가 아닌 한 학자사서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서양에서 최초의 학자사서는 아리스토텔레스였으며, 동양에서는 노자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노자 모두 대학자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자사서는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로 설명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적인 근거는 고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서양에서 학자사서의 사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는 Alexandria 도서관 사서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Callimachus가 대표적이다.

Callimachus가 훌륭한 시인이라는 사실은 문학사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며, 작품수

가 800권에 이른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은 약 64권의 풍자시와 6개의 찬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유명한 작품으로는 “각지의 제레스판의 연기(緣起)를 노래한 ‘Aitia’ 4권, 그리스 신화 ‘Theseus 이야기’의 주인공 Theseus의 에피소드를 노래한 소서사시 ‘Hekale’, Ptolemaios 3세의 왕후 Berenike에게 헌상한 ‘The Lock of Berenike’ 등이 있다.

그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 J. U. Powell은 ‘The Bath of Pallas’에서 “Callimachus는 뛰어난 수준의 시적 능력을 타고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워트, 발명, 뛰어난 기민함을 다루기에는 부족했지만 그의 강력한 힘은 예술적 편안함과 매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애수적인 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기질은 Callimachus가 Pinakes를 기술하는 성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Callimachus의 관장직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allimachus의 학문적 명성 및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그가 이루어 놓은 Pinakes 목록에 있다. 이는 전체 학문세계에 대해서 Alexandria 도서관에 소장한 정보를 제공하고 배포하기 위한 Callimachus의 노력인 것이다. 즉,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의 소산물이 Pinake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자로서 Callimachus는 학문에 대한 정보의 전달자와 배포자로 볼 수 있다. 즉 학문은 연구자들

의 저작에 의존하지만 학문을 위한 도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목록, 서지, 사전 편찬자 등과 같은 여러 학자들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allimachus는 Alexandria 도서관장 혹은 사서로서 Pinakes란 도구를 생성한 편찬자이자 발명가이기 때문에 도서관 역사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인물이며 “서지학의 아버지”로서 평가받고 있다.

3. Pinakes의 어원과 내용

3.1 Pinakes의 어원

Oxford 영어사전에 의하면 Pinakes는 ‘점토판(tablet)’의 의미로서 ‘list, catalogue, index’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Callimachus가 Alexandria 도서관의 장서를 근거로 하여 편찬했다고 하는 ‘목록’을 의미한다.

Pinakes는 그리스어로 ‘Pinax’의 복수형이고 ‘Pinax’는 한 장의 점토판을 의미한다. 따라서 Pinakes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몇 장의 점토판’, 또는 ‘점토판의 집합체’가 된다. 더구나 이것은 점토판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고 “점토판 자료를 보관하는 서고의 벽면에 설치된 서장(書場)에 자료를 모아 놓은 상태를 표시하는 말”을 나타낸다. 이것은 Alexandria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가 주로 이집트에서 생산된 기록매체인 파피루스에 쓰여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낱말을 쓴 것

은 Pinakes란 말이 오래된 점토판 자료에서 목록의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어원으로 보아서 Alexandria 도서관 이전에도 목록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Alexandria 도서관에서 말하는 Pinakes의 의미는 점토판이 아닌 파피루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가 상부에 붙은 게시판으로 서가 위에 놓인 자료에 대한 안내판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것이 후에 목록 또는 리스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2 Pinakes의 내용

Pinakes에 관한 내용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Pinakes가 지닌 표제에 대하여 학자들이 기술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서 종합된다. 첫째, “Tables of All Those Who Were *Eminent in Any Kind of Literature* and of Their Writings in 120 Books”로서 ‘학문의 각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과 그들의 저작물을 기록한 목록 120책’이다. 둘째, “Tables of Those Who Were *Outstanding in Every Phase of Culture*, and Their Writings—in 120 Books”로 기술 있다. 이는 ‘모든 문화적 측면에서 뛰어난 사람과 그들의 저작 목록 120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표제의 표현상의 차이로 ‘Eminent’와 ‘Outstanding’, ‘Any Kind’와 ‘Every Phase’ 그리고 ‘Literature’와 ‘Culture’

로서 다른 큰 의미가 없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어의 차이는 그리스 원자료를 해석하는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서 오는 단어 사용의 차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개의 상이한 단어만으로도 그 당시에 문화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망라적으로 기입한 목록이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다만, 고대와 중세의 문헌에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서명은 붙여져 있지 않고 ‘Incipit’라고 불리는, 본문 중의 첫 어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0책으로 된 Pinakes의 Incipit에는 “Tables and resister of dramatic poets, chronologically arranged from earliest times”가 있으며, 이러한 연속적인 테이블에는 서사시와 또 다른 유형의 시, 별, 철학, 역사, 수사, 그리고 잡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Pinakes 각 장에 대한 부서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Pinakes 표제에 대하여 高津春繁은 “그리스 문헌사 점 문학사”라고도 칭하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우수한 사람들과 그 작품 120권에 이르는 목록 Pinakes”로 명명하고 있다. 역시 이 표제는 그리스 철학연구자인 副島民雄에 따르면 “Pinakes는 Suidas보다 오래된 3세기 전반의 Diogenes Laertios의 철학사에 인용되고 있다. 그 원문의 뜻은 ‘모든 학문에 있어서 유명한 저작자의 표 및 작품’이 되지만, 내용상으로부터 표라는 단어를 저자와 작품 양쪽에 걸친 저자 및 작품의 표, 즉 목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Pinakes에 대하여 “그리스 고전 전

기록 전 120권”, Pinakes의 서명을 생각해서 “Pinakes 그리스 고전문헌총람”으로 명명하는 등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듯 Pinakes에 대해서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지만 Pinakes의 표제를 보면 이 목록은 문화, 학문의 모든 부문에 걸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 전반에 있어서 모든 작가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명한 것에 한하고 있다는 표제가 나타내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 점이 오늘날의 도서목록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Pinakes의 내용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allimachus는 Alexandria 도서관 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Pinakes는 Alexandria 도서관의 장서목록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 문학의 저명한 작가와 작품을 나타낸 일람표, 아니면 간단한 문학적 참고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설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 Tzetzes는 Callimachus를 ‘왕궁도서관의 사서’로 기록하고 있고, 도서관 장서수를 보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 수치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료들을 검토해 보면 목록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적 지식을 가진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록을 Callimachus가 작성했다는 사료 검증으로 인해 Pinakes는 간단한 문학작품 목록이 아니라 Alexandria 도서관의 장서 목록이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Pinakes가 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모든 책의 목록이 아니라 ‘저명한 작가’만의 목록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Alexandria 도서관의 대규모 수서정책

에 따라 서적이 파피루스 문서이든 양피지문서이든 상관없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서 무명 작가와 유명한 작가의 저작을 고르는 사서의 정리작업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저명한 학자 및 그들의 작품목록을 편집하는 것만이라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Callimachus는 작품성과 소장 가치가 있는 문헌을 우선적으로 Pinakes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또한 Callimachus는 피상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비평, 내용의 평가, 진위여부의 판별 등 문헌의 정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Pinakes는 한 주제의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수록한 서목으로서 ‘선택서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Pinakes는 Alexandria 도서관 장서에 기초한 목록으로서 저명한 학자를 선별한 서지 이면서도 장서목록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Callimachus는 Pinakes 목록의 기재 양식에 대한 구상을 하였고 이와 같은 Callimachus의 노력이 Alexandria 장서에 접근하도록 하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4. Pinakes 목록의 구성 및 체계

4.1 Pinakes 형태 및 수록문헌 수

Pinakes의 어원은 점토판이지만 Pinakes

는 파피루스 조각에 기술된 목록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약간의 단편만 남아있기 때문에 Pinakes의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우선 Pinakes 외형에 대해 Norris는 “이 목록은 파피루스의 슬립으로 만들어지고, 각 슬립에는 짧은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어 이 타이틀이 도서의 라벨과 명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서사재료가 파피루스였고 이 파피루스 슬립 1장의 크기가 보통 40×15cm 정도의 것이 많았다. 한 권의 길이는 30m에서 40m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따라서 Pinakes는 우선 한 장 한 장의 슬립에 자료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이것을 일정 순서로 나열하고 조합하여 권자본으로 만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Pinakes가 ‘120 books’의 목록이었던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권자본의 형태인지 책자형이었던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대 파피루스 서적의 형태는 권자본이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120권’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Johnson이 말한 것처럼, “Callimachus가 어떠한 형태로 권자본에서 책자형태로 전환했다면 Pinakes를 120권의 목록으로 하기보다, 120책의 목록”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책자형 서적의 출현에 관해서는 Alexandria 도서관과 경쟁관계이기도 한 Pergamon 도서관이 양피지 서적을 수집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이 Codex 즉, 책자형이었다고 생각하면 파피루스 서적이라도 Callimachus 시대부터 서서히 책자형 형태로 나타났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Lois M. Chan은 “책자형 목록의 근거를 Pinake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책자형 형태에 관한 추측은 Alexandria 도서관 업무 중 ‘두루마리를 적당한 표준적인 형태로 편집’하는 업무를 참고하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다면 책자형 출현의 시기를 Callimachus 시대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inakes에 수록된 문헌의 양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결국 Alexandria 도서관의 장서수를 참고로 하면서 Pinakes가 대상으로 한 당시의 도서관 문헌량의 크기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도서관 장서수를 보면 Brucheium에는 약 40만권의 혼합저서와 9만권의 단일저서가 소장되어 있고, Serapeum에는 4만3천권의 단일 저서가 소장되어 있었다.

Serapeum 설립이 Callimachos의 재직 연대보다 조금 뒤인 점을 생각하면 Callimachus가 Brucheium 재직 중에 Pinakes를 편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inakes 수록문헌수에 관해서 “Callimachus는 Brucheium이 소장하고 있는 9만권의 단일저서 중에서 Pinakes에 수록할 것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Callimachus는 도서관 자료의 1/5(9만권)에 대한 목록과 설명을 완성”하였다고 함으로써 Pinakes가 수록하고 있던 문헌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였는지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Pinakes는 방대한 Alexandria 도서관 장서를 모두 수록하고 있진 않았지만 적어도 Brucheium의 9

만권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러한 대규모의 작업은 Callimachus의 제자들에게 의해서 계속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2 분류체계

앞에서 언급했듯이 Alexandria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 중 실제로 얼마만큼의 문헌이 Pinakes에 수록되어 있었는지 정확한 수록문헌 수는 분명하지 않다. 비록 Pinakes 목록이 120권이라고 하였지만 Callimachus의 최초의 구상은 Alexandria 도서관 장서 전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먼저 Pinakes가 주제순으로 배열되어있기 때문에 분류목록이라는 관점에 대해 D. M. Norris는 “Strabo에 의하면 도서를 최초로 분류한 것은 Aristoteles였다. 그렇다면 Callimachus는 분류의 발상을 Aristoteles에게서 영향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을 전제로 Callimachus의 Pinakes 분류체계가 어떤 것인지 또 분류항목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는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명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Pinakes에 모든 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대구분되어 있었다고 하였지만 Pinakes 자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분류체계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분류체계의 다양한 결과는 사료나, 후세의 여러 문헌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 복원할 수밖에 없고 복원방법 또한

연구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학자들의 다양한 Pinakes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C. Wachsmuth(1860)는 3구분하였으며 이는 연대순으로 된 상연극 목록과 수사학편, 법률과 철학을 포함시킨 총서편이다.

둘째, C. F. Blomfield(1815)는 4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연대순으로 된 상연극 목록과 역사서편, 수사학편, 법률편이다.

셋째, Fr. Neitzsch(1869)는 5구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각 분류의 자모순으로 수사학편, 시편, 잡총서편, 사학편, 철학편이다. 加藤은 같은 5구분이나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구분법에 있어서 주제와 분류명사 표현이 다르다. Neitzsch는 분류명사를 학문으로 표현하면서 잡총서를 포함시킨 반면에 加藤은 학자로 표현하고 잡총서가 아닌 법률가를 포함시켰다.

넷째, O. Schneider(1873)는 6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연극 목록을 포함하여 시편, 법률편, 철학편, 수사학편, 잡총서편으로 모두 연대순 배열이다. W. Christ-W. Schmid(1920)는 시인, 법률편, 철학자, 역사가, 변론가, 잡편으로 학문과 학자별로 혼용하여 6구분하고 있다. V. Gardthausen(1922)은 법률가, 철학자, 시인, 역사가, 변론가, 잡총서편으로 구분하였다. E. C. Richardson(1964)은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자, 잡록가로서, Raymond Irwin(1966)은 서사시 및 다른시, 법률, 철학, 역사, 수사학, 잡서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F. Susemihl(1891)는 7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인, 희곡작가,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변론가 및 수사학자, 잡편(총서)로 구분하였다. A. W. Mair(1955)는 시인, 희곡작가, 법률, 철학, 역사, 수사학, 잡서로 구분하고 있다.

여섯째, E. A. Barber(1928)는 8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희곡작가,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변론가, 수사학자, 잡편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D. M. Norris(1939)는 시인, 희곡작가, 법률가, 철학자, 역사학자, 웅변작품, 수사학작품, 잡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Francis J. Witty(1958)와 Elmer D. Johnson(1965)는 잡서의 순서만 바뀌고 동일하게 수사학, 역사, 법률, 철학, 잡서, 의학, 서정시, 비극으로 8구분하였다.

일곱째, Edward A. Parsons(1952)은 10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서사시 및 다른시, 희곡, 법률, 철학, 역사, 수사학, 의학, 수학, 과학, 잡서로 구분하고 있다.

여덟째, Fr. Schmidt(1922)는 2류 11강목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류, 서사시 및 비가조시, 단가조시, 가요조시, 비극, 희극과 제2류에는 사학, 수사학, 철학, 의학, 법률, 잡편 총서로 구분하고 있다.

아홉째, 栗野頼之祐(1953)는 12구분하였는데 시문서와 산문서로 크게 나누어 제1류 시문서에는 서사편, 비가조편, 단가조편, 가요조편, 비극편, 희극편, 제2류 산문서에는 법률편, 철학편, 수사학편, 사학편, 의학편, 잡편

으로서 2류 12강목으로 세분하고 있다. 또한 Milkau-Leyh(1957)의 핸드북에는 서사시, 애가조, 풍자조, 가요조, 비극, 희극, 역사, 수사학, 철학, 의학, 법률, 잡서로 12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자들의 Pinakes 분류구분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3구분, 4구분, 5구분, 6구분, 7구분, 8구분, 10구분, 11구분 그리고 12구분 등 분류가지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단편적인 사료로 인해 연구자들 마다의 해석에 따른 임의적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 Neitzsch는 아테네의 연극 상연 목록을 Callimachus의 도서 목록과 별개의 저술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이를 제외하면서 5구분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Fr. Neitzsch는 각 분류를 자모순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O. Schneider는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을 알 수 있다.

D. M. Norris는 “이 8구분은 목록의 주요 구분이고, 이것들은 다시 세구분된다. 예를 들면 철학자는 철학의 학파에 의해 배열되고...”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8구분만 제시하고 세구분하는 분류의 전 항목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또 다른 서술에서 “Callimachus는 120류(classes)에 배열된 분류목록을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120 classes’는 주제를 120구분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표 2〉 Pinakes의 분류구분

구분지	연구자	주제내용
3구분법	C. Wachsmuth(1860)	고대부터 연대순으로 된 상연극목록 - 비극, 희극, 디터람보이광연 수사학편, 총서편(법률, 철학 포함)
4구분법	C. F. Blomfield(1815)	고대부터 연대순으로 된 상연극 목록 역사서편, 수사학편, 법률편
5구분법	Fr. Neitzsch(1869)	수사학편의 목록(A-Q) 24권 시편의 목록(A-Q) 24권 잡총서편의 목록(A-Q) 24권 사학편의 목록(A-Q) 24권 철학편의 목록(A-Q) 24권
	加藤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가(옹변가)
6구분법	O. Schneider(1873)	고대부터 연대순으로 된 시편목록 " 상연극목록 " 법률편 목록 " 철학편목록 " 수사학편목록 잡총서편목록
	W. Christ - W. Schmid(1920)	시인, 법률편, 철학자, 역사가, 변론가, 잡편
	V. Gardthausen(1922)	법률가, 철학자, 시인, 역사가, 변론가, 잡총서편
	E. C. Richardson(1965)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가, 잡록가
	Raymond Irwin(1966)	서사시 및 다른시, 법률, 철학, 역사, 수사학, 잡서
7구분법	F. Susemihl(1891)	시인, 희곡작가,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변론가 및 수사학자, 잡편(총서)
	A. W. Mair(1955)	시인, 희곡작가, 법률, 철학, 역사, 수사학, 잡서
8구분법	E. A. Barber(1928)	희곡작가,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변론가, 수사학자, 잡서
	D. M. Norris(1939)	시인, 희곡작가,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옹변작품, 수사학작품, 잡서
	Francis J. Witty(1958)	수사학, 역사, 법률, 철학, 잡서, 의학, 서정시, 비극
10구분법	E. D. Johnson(1965)	수사학, 역사, 법률, 철학, 의학, 서정시, 비극, 잡서
10구분법	Edward A. Parsons(1952)	서사시 및 다른시, 희곡, 법률, 철학, 역사, 수사학, 수학, 과학, 잡서
2류 11강	Fr. Schmidt(1922)	제1류 서사시목록(및 비가조시), 단가조시목록, 가요조시목록, 비극목록, 희극목록 제2류 사학목록, 수사학목록, 철학목록, 의학목록, 법률목록, 잡편총서 목록
12구분법 (2류 12강)	栗野頼之祐(1953)	제1류 시문서 서사편목록, 비가조편목록, 단가조편목록, 가요조편목록, 비극편목록, 희극편목록 제2류 산문서 법률편목록, 철학편목록, 수사학편목록, 사학편목록, 의학편목록, 잡편목록
	Milkau-Leyh (1957)	서사시, 애가조, 풍자조, 가요조, 비극, 희극, 역사, 수사학, 철학, 의학, 법률, 잡서

있다. 그렇다면 Norris의 주장대로 Pinakes는 더 구분한 세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지만, Norris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120 classes'가 아닌 '120 books'로 잘못 기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Pinakes의 표계를 보면 '120 books'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Pinakes의 분류구분에 대해서 A. W. Mair도 "8구분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주장하고 기술했지만 이 사항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7구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8구분이라고 하면서 7구분한 것은 수사학(Rhetoric)의 탈락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수사학을 제외하고는 Norris의 분류구분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분류구분 중 특히 E. A. Parson의 10구분은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수학과 과학을 포함시킨 정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Alexandria 도서관에서 수학과 자연 과학이 연구되었음에 틀림없다는 추측만 하고 있다.

Fr. Schmidt는 종래의 분류표 연구가 기준 사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 대하여 Proklos(AD 412-485)의 '문전학선집(文典學選集)'의 분류와 'Alexandria의 고전작가표'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11구분의 분류표를 복원했다. 栗野賴之祐는 Schmidt의 11구분에 대하여 사료 검증으로 획기적인 분류를 제시하여 여러 학술 가운데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栗野賴之祐는 Fr. Schmidt가 사용한

사료를 그대로 발췌하고, 빠뜨린 사료를 추가함과 동시에 분석·검토하였다. 또한 Schmidt가 찾은 시문서의 항목에 대한 복원을 높게 평가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비가조시(悲歌譚詩)를 서사시와 별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산문서 항목에 대해서는 Callimachus의 제자 Hermippus의 작품 '전기, Bioi'의 항목배열을 근거로 하여 Schmidt와 같은 구분을 하였으나 산문서 안에서의 배열은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2류 12강이라는 분류를 새롭게 복원한 것이다.

이와 같은 栗野賴之祐의 연구는 설령 "Pinakes 그 자체가 전승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권위의 모방성에서 생각하면 후세의 유형으로부터 역으로 원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그 신뢰성은 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ilkau의 핸드북은 우선 크게 문문관계와 산문관계의 2류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는 Fr. Schmidt, 栗野賴之祐와 동일하나, 제1류의 세목 즉 시편에서 단가조시 대신 풍자시가 포함되었고, 특히 제2류 안에서의 배열은 Fr. Schmidt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Fr. Schmidt, 栗野賴之祐와 Milkau-Leyh의 구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제분류표 가운데 가장 Pinakes 분류에 근접한 것은 栗野賴之祐의 연구라고 副島秀夫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Pinakes 분류체계의 복원상 栗野賴之祐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Pinakes의 근본사료가 되는 단편사료를 비롯하여 유럽 제가(諸家)의 연구결과를 상

세히 비교검토하고 보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Norris와 Mair, 그리고 Milkau의 핸드북 등 여러 학자들이 연구에 사용한 모든 자료를 섭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가장 높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Pinakes의 분류구분이 Norris의 주장대로 2류 12강의 분류에 그치지 않고 각 강이 더욱 세구분 되었다면 그 구분이 어떠한 것이었지는 현재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Callimachus의 분류가 2류 12강목의 소분류였더라도 이 목록은 Alexandria 도서관의 도서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교정이 끝난 ‘유명한 저자’의 작품을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수록수가 도서관 장서에 비하여 비교적 적었다는 점과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열거식 분류항목의 설정보다도 도서를 즉물적(即物的)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분류로도 장서관리가 충분했을 것이다.

상기 <표 2>에서 나타난 분류구분을 보면 분류명사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이 Pinakes 연구결과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표 2>에서와 같이 V. Gardthausen이나 Norris, 그 밖의 Baber 등 연구자들은 분류명사를 시인, 입법가, 철학자와 같은 인간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외에 O. Schneider의 연구자들은 시, 법률, 철학과 같이 학문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면 Christ, Schmid와 Mair 같이 학문, 학자 두 가지를 혼용하여 분류명사를 표현한 연구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상 문제에 대해서 栗野頼之祐에 따르면 “Pinakes의 분류는 유인별(類人別)이 아니고 유서별(類書別)”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Pinakes에 대한 사료 단편의 예이다. Athenaeus의 단편에 ‘수사학자 Dionysius가 Chalcus의 시인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가 아테네인들에게 청동화폐를 사용토록 권유했기 때문이지만 Callimachus는 이 변론을 수사학편 목록에 기재했고, Athenaeus XV, 669d’에 기입되어 있다. 이 외의 단편에도 ‘법률편 제3도서목록’이라든가 ‘잡편도서목록’과 같이 학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사료단편 속에는 ‘수사학자편목록’, ‘철학자편’과 같이 학자별로 기재된 것도 있지만, 栗野頼之祐에 의하면 이 사료는 “인용사료계통이 영성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나 연구가 없는 한 연구자들은 Pinakes가 학문별 분류라는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Pinakes 목록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연구자들 또한 원자료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2차 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Pinakes 목록에 대한 연구논문은 사실상 전무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목록학 텍스트에 소개된 Pinakes 분류체계로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정필모(1990)는 Alexandria도서관 장서를 시, 역사, 철학, 수사, 잡록으로 5구분하였는데 이는 James Thomson의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주제가 같은 5

구분을 소개하였으나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가(웅변가)로서 학문별이 아닌 학자별로서 5구분을 제시하였다. 유서별(類書別)이 아니고 유인별(類人別)로 구분한 것이다.

둘째, 김명옥(1989)과 최달현·이창수(1998)는 6구분하였는데 주제가 동일한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 잡록가로서 학자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다. 여기서 김명옥은 E. C. Richardson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셋째, 정필모·오동근(1991)은 8구분하였는데 수사학, 역사, 법률, 철학, 의학, 서사시, 비극, 잡록의 학문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김남석(1995)도 8구분을 소개하면서 먼저 Norris의 자료를 인용해 시인, 희곡작가, 법률서의 저서, 철학자, 역사학자, 웅변작품, 수사학작품, 잡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석에 E. A. Parsons의 10구분을 소개하고 있다. 동일한 연구자라 할지라도 구분이 각기 다른 것은 인용한 문헌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간에 따라 분류 가지 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김명옥(1993)과 최정태·양재한·도태현(1998) 그리고 윤희윤(1998)은 2류 12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1류 시문서에 서사편, 비가조편, 단가조편, 가요조편, 비극편, 희극편, 제2류 산문서에 법률편, 철학편, 수사학편, 사학편, 의학편, 잡편목록으로 구분하였다. 윤희윤은 김명옥의 논문에서 인용하였고, 김명옥은 ‘主題組織法概論’의 연구

를, 최정태·양재한·도태현은 ‘資料分類法及び演習’에서 재인용하였다. 1차자료를 인용하지 못하고 재인용에 그치고 있음은 이 분야에 대한 원자료의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김세익(1992)은 2부로 나누어 그 안에서 다시 8개 주제별로 구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구분법은 즉, 2류 16강이 되는 것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없다.

상기에서 국내의 목록법 텍스트에 나타난 Pinakes에 관한 분류구분을 인용문헌과 함께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국내문헌에 소개된 Pinakes의 분류는 <표 2> 보다 적은 유형의 구분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저자들이 인용한 2차 자료에만 의존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책을 출간하는 시기와 그 시기에 인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에 의해서 동일저자가 다른 문헌에서 또 다른 구분법을 소개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즉, <표 3>과 같이 국내에서는 5구분, 6구분, 8구분, 10구분, 12구분으로 나타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12구분이라는 더 자세한 항목을 가지고 있는 분류구분을 소개하고 있다. <표 3>과 같이 12구분에 대해 인용한 출처는 다르나 이 구분은 栗野賴之祐의 연구결과이다.

상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栗野賴之祐의 연구는 학자들이 Pinakes 분류 연구에 사용한 모든 자료들을 검증하고 추가하여 가장 타당성 있는 분류를 복원했다고 고려된다. 본 연구

〈표 3〉 목록학 텍스트에 소개되고 있는 Pinakes 분류구분

구분지	연구자	주제내용	출처
5구분법	정필모 (1964, 1990)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가(웅변가)	
		시, 역사, 철학, 수사, 잡록	James Thomson (1940)
6구분법	김명옥(1989)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가, 잡록가	E. C. Richardson (1964)
	최달현, 이창수 (1998, 2005)	시인, 법률가, 철학자, 역사가, 수사가, 잡록가	
8구분법	정필모, 오동근 (1991)	수사학, 역사, 법률, 철학, 의학, 서사시, 비극, 잡록	
	김남석(1995)	시인, 희곡작가, 법률서의 저서, 철학자, 역사학자, 웅변작품, 수사학작품, 잡서	D. M. Norris (1939)
		수사학, 역사, 법률, 철학, 잡서, 의학, 서사시, 비극	F. J. Witty (1958)
10구분법	김남석(1995)	수사학, 역사, 법률, 철학, 잡서, 의학, 서사시, 비극, 수학, 과학	E. A. Parsons (1952)
12구분법 (2류 12강)	김명옥(1993)	제1류 시문서 서사편, 비가조편, 단가조편, 가요조편, 비극편, 희극편 목록 제2류 산문서 법률편, 철학편, 수사학편, 사학편, 의학편, 잡편 목록	丸山昭二郎, 岡用靖, 澁谷加彦 (1986)
	최정대, 양재한, 도태현(1998)	제1류 시문서 서사편, 비가편, 단가편, 가요편, 비극편, 희극편 제2류 산문서 법률, 철학, 수사학, 사학, 의학, 잡	今まど子 外 著 (昭和 59)
	윤희운(1998)	제1류 시부 서사편, 비가조편, 단가조편, 가요조편, 비극편, 희극편 목록 제2류 산문부 법률편, 철학편, 수사학편, 사학편, 의학편, 잡편 목록	김명옥(1993) 한국문헌정보학회
2류 16강	김세익(1992)	시부와 산문부로 나누고, 각부를 다시 역사, 철학, 문학, 법률, 의학 등 8개 주제별로 구분	

〈표 4〉 Pinakes의 분류체계

제1류 시문서	제2류 산문서
서사편 목록	법률편 목록
비가조편 목록	철학편 목록
단가조편 목록	수사학편 목록
가요조편 목록	사학편 목록
비극편 목록	의학편 목록
희극편 목록	잡편 목록

강은 시문서 6부분(각 10책), 산문서 6부분(각 10책)이 합쳐서 총 120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Pinakes의 분류체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4.3 목록체계

에서는 栗野賴之祐의 연구결과인 2류 12강의 구분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이 구분지를 따르고자 한다. 栗野賴之祐의 2류 12

Pinakes의 목록기술은 현재 목록법의 기술 방법과는 다르다. 우선 Pinakes는 전기서지의 형식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에 관한 기술사항이 기술데이터로 포함되어 있다.

〈도서목록 기재양식〉

<p>A 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가명 때로는 필명(筆名), 작명(淸名·別名)을 붙인다. 2. 부친명 3. 출신지명 4. 직업명 5. 학력, 그 스승의 이름 6. 기타 정치적·사회적 경력 7. 연대(생년, 최초의 上演, 盛時, 享年 등) 8. 가족, 처, 자손 및 우수한 문하생의 이름 <p>B 서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부터 서명이 있는 것은 그대로 서명을 기입한다. 2. 서명이 없는 것은 적당한 새로운 서명을 붙인다. 3. 때로는 저자의 창작번호를 더한다. 4. 서명 다음에는 반드시 최초의 행문을 게재한다.(첫 행의 문장을 언급한다) <p>C 참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연대 2. 저작사정 3. 작품의 진위 4. 용어 5. 본서(本書)에 대한 평론 <p>D 문서의 행수¹⁾</p>
--

1) 소장 원본에는 100행마다 '부분행수'가 있고, 각 도서목록의 권말에는 '총행수'와 이 도서목록보다 앞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작가의 다른 작품행수를 가산한 '누계행수'를 기록하고 있다. 단 목록에는 단지 '총행수'만을 등록한다.

그 기술사항은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저자명·출신지·부친명·학력·스승의 이름·필명 등 간단한 전기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그리고 서명이 없을 때에는 새로운 서명을 기입하며 그 출처의 확증에 관한 주석, 작품의 첫 단어 즉, 권두어구, 마지막에 파피루스 사본의 행수”가 기재되어 있다.

Pinakes 기입양식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粟野賴之祐의 사료검증 결과로서 각 작가의 작품 [도서목록] 기입 양식은 위와 같다.

위와 같은 기재양식에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양식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된 일반적 양식이며, 각 작가들이 이 기준양식대로 상세히 기입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Pinakes의 목록수준이 상세목록과 간략목록이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언급한 ‘기재양식’에 대하여 각 작가의 약력, 작품명과 그 배열법 및 행수 등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粟野賴之祐는 “Callimachus 이전에 있던 저명한 작가의 전승사본의 본질, Callimachus의 Pinakes와 비슷한 도서목록의 배열법, 각 작가의 전기, 인용고전, 사본, 파피루스, 비문 등에 남겨진 전기, 서명, 행수 등의 사료를 차례차례 검토”하였다. 이것은 ‘Alexandria 도서목록’의 영상과 그 목록의 영향이 미치는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Pinakes의 기재양식을 현대 목록의 형식적 목록에 비교해 본다면 다

분히 산문적 목록이었다고 분석된다. 이로 인해 Pinakes의 형식을 짐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상의 기재사항 즉, 약력, 서명, 참고사항, 문서의 행수를 토대로 오늘날 목록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저자의 약력

Pinakes에는 저자명 아래 저자에 관한 약력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양식과 같이 Pinakes는 주제를 구분하여 각 저자의 내역, 그 저작의 본문행수, 그리스 문헌의 평전, 서지개요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작품자체의 간결한 분석과 저자의 전기사전을 겸한 분류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목록에 전기를 기입한 것은 오늘날의 도서관 목록에서 보면 특이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스타일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전기형식은 동명이인의 저자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Lionel Casson은 천문학자 에우독소스에 대한 서지사항으로서 Callimachus가 작성한 목록에서 추론한 것을 예로서 설명하고 있다.

쿠니도스의 에우독소스, 아버지는 아이스키네스 : 천문학자, 기하학자, 의사, 법률가. 아르키타스에서 기하학을 배웠으며, 시칠리아의 필리스타온에게 의학을 배웠다.

이러한 신상명세 이후에는 알파벳순으로 된 작가의 작품 목록이 기록되며, 이것은 대개 단락별로 구분되어진다.

이와 같이 서목을 기록한 경우, 기본저록을 저자명에서 도출해내는 것은 헬레니즘문화의 인간중심사상의 반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로 목록기술상 저자 아래 저자의 모든 작품을 배열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저자로부터 도출해 낸다는 이 기재형식은 오늘날 저자기본저록의 서양전통이 Callimachus의 Pinakes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副島民雄은 Diogenes Laertios의 철학사례로 들면서 Pinakes와 극히 닮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Diogenes Laertios의 ‘철인전(哲人傳) De clarorum philosophorum vitis etc. 10권’으로서 표제가 ‘철학에 있어서 저명한 사람들 및 각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애와 학설의 요구’라고 되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처음에 철학자의 전기를 기술하고, 그후에 학설을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방법은 Pinakes와 유사하며, 처음의 ‘철학에 있어서’를 ‘학문에 있어서’로 바꾸고 나중의 ‘학설의 요구’를 ‘작품의 요구’로 하면 그대로 Pinakes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Diogenes가 Pinakes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저자명 기본저록은 인물전기 형식의 흔적이고, 이 인물전기 형식은 소요학파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Aristoteles 학파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기본저록에 대한 근원

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Callimachus가 도서관 자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Aristoteles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Norris의 추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저자명 기본저록이 동일 분류내에서는 당연히 저자의 알파벳순이나 혹은 저자의 연대순이 되기 때문에 분류목록이라 하더라도 Pinakes는 실제 저자목록에 가깝다. 또 Pinakes가 학문에 따른 목록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분류목록 기능보다는 오히려 저자목록 기능이 강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한 결과 Pinakes는 전기서지 형식을 가진 분류목록이나 저자목록의 기능이 강한 목록이라 할 수 있다.

2) 서명

Pinakes의 기술데이터의 하나인 저작명은 오늘날의 서명과는 조금 다르다. 서명은 현대 목록법에서 표제지상에 인쇄되어 있는 표제이다. 물론 고대 문헌에도 서명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을 기재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는 표제지상의 서명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Pinakes 등 고대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서명은 현대목록법의 보충표제(supplied title)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목록작성자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통칭의 서명을 참고로 하면서 보충표제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표제가 붙여지는 과정은 정확하지 않을 것

이다. 그래서 ‘Incipit’의 기재가 의미를 갖게 된다. Incipit의 기술은 현대목록법에 있어서 서명의 기술에 해당될 것이다. Incipit는 고대의 Stichometry²⁾라는 특수한 서지기술법에 의해서 기입되었다. 물론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동일저작에 대한 다른 사본과의 식별에 필요했지만 Incipit만으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사본에 쓰여진 필사의 행수도 기재했다. 이 부분은 현대목록법에서는 대조사항에 해당한다.

Incipit는 동일 저작의 다른 사본서적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기술 테이터지만 이 역할 이외에도 서적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요소였다. 고대 사람들은 서적 한권의 서명을 정할 때 본문 텍스트 최초의 어구 속에서 의미 있는 어구를 추출해서 서명으로 채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것은 즉 “오늘날 이용자가 Homeros의 Iliad를 읽고 싶을 때 목록검색 시 서명인 Iliad를 검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사람들은 Iliad의 Incipit인 ‘M....’을 검색하려고 했다”는 추정도 성립한다. 즉, 다시 말하면 Iliad 본문 텍스트 최초 어구 속에서 ‘M....’으로 시작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목록 안에 Iliad의 Incipit를 기록하였다면 검색 시 Iliad가 아닌 ‘M....’으로 검색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서명 기록에 대해 현재 목록법 측면에서 살펴볼 때 ‘Pinakes에 원본의 서명이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되었을까?’는 의문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보충표제와 같이 Alexandria 도서관 당시 Callimachus는 상당히 자유롭게 원본의 서명에 보충 및 수정을 가감하거나, 혹은 원본의 서명을 생략하고, 그 키워드만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은 그 당시 저작의 서명에는 불완전하고 부적당한 것이 많고, 일부는 서명이 없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명 저록시 편찬자가 새로운 서명의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목록법과 비교한다면 Pinakes의 서명기록이 자유로웠던 반면에 오늘날 서명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목록상의 서명은 어디까지나 원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Pinakes에는 서명 외에 그 저작의 첫 행(First line) 혹은 첫 단어(Opening words)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는 스승의 작품명으로 저작했고 동일한 서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단이 강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저작은 서명이 극히 불안정하고, 또 오늘날과 같이 정밀한 청구기호가 연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록상의 도서와 서가상 도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확실히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로 인해서 서명 다음에 첫 행의 문장을 언급함으로써 다른 작품과 식별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목록이 불완전했던 중세의 수도원 도서관에서도

2) 구두점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서기법이고, 그리스 고전 등의 산문을 그 행의 길이를 의미와 리듬에 따라서 행분하는 방법이다.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목록상의 서명과 서가상 문헌에 표시된 서명과의 관계이다. 이것에 대해 Norris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Slip에는 간단한 타이틀이 쓰여지고, 이 타이틀이 도서의 라벨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라벨에는 긴 서명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목록상 서명의 첫 단어를 취하거나, 키워드를 선택하여 기입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Callimachus의 Pinakes가 단순한 서지목록에 그치지 않고, Alexandria 도서관의 검색용을 겸한 장서목록"이었던 것의 유력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3) 참고사항(저작의 간단한 분석)

작품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일반주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재형식은 상당히 자유롭게 저작의 특징을 기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저작연대, 저작사정, 작품의 진위, 용어, 작품에 대한 평론에 이르기까지 기재되어 작품의 분석이 철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저작연대는 지금의 발행년도에 해당할 것이며, 저작에 대한 사정은 저작에 관련된 정보로서 오늘날 발행지명이나 발행처, 발행일자 등을 기록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작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해설과 작품에 대한 평론은 현재의 주기사항과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 대해서 Callimachus는 도서관목록의 작성을 맡아 가능한 한, 작가의 연구,

서명의 옳고 그름, 분류, 교정 등 작품의 진위에 이르는 정확한 원문의 제작 및 정리를 위해 연구·조사하여 의견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은 도서관 수서정책의 일환으로 동일한 사본이면서 저자명, 서명, 내용을 달리 한 위조문헌, 낙장이 있는 것 등 많은 불필요한 문헌들이 도서관에 입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동양의 교수학 내지 교감학의 형식이 초기 형태의 목록임을 동서양 공히 유사하였다는 사실도 증명된다. 더불어 Callimachus가 작품을 세심하게 분석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서지학자로서 '서지학의 아버지'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저작의 권수 또는 행수

저작의 권수, 행수는 오늘날 자료의 수량이나 여타 형태적 세목, 크기에 관해 기술하는 대조사항에 해당되며, 도서가 몇 권 혹은 몇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Homeros의 Iliad는 24권 및 15,693행과 같이 권수와 행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권수, 행수는 앞서 언급한 Incipit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본과 구별하는 요소로서도 사용되었다. 즉, 권수, 행수가 구별요소로도 사용되었지만 Callimachus는 원본에 포함된 행의 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문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권수, 행수의 기재는 고

대 사서와 책 판매인에게 복사본의 확실성과 성실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작에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책 판매인에게는 저작의 출판과 복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가 필요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Pinakes의 목록체계에서 기술요소인 저자의 약력, 서명, 참고사항, 저작의 권수, 행수 등을 오늘날의 AACR2R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상기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inakes는 오늘날 AACR2R와 비슷한 기본적인 목록 기술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저자의 약력에서 표목의 기본으로서 저자명 기

본저록과 생몰연도를 기입하는 연대기입이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명기입방식에서 보면 먼저 기본서명은 말할 것도 없고, 서명이 없을시 새로운 서명을 붙이는 Pinakes 기재형식과 AACR2R에서는 각괄호를 묶어 새로운 서명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주기사항에 기재하는 형식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판차사항, 일반주기사항, 형태기술사항 등 Pinakes에서 오늘날과 동일한 기본적인 목록형식을 2000년 전에 이미 서지데이터 요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지통정의 장구한 역사적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지데이터 요소의 기술은 오늘날 목록의 원형이 된

<표 5> Pinakes와 AACR2R의 기술요소 비교

기술요소 \ 목록	Pinakes	AACR2R	비 고
저자의 약력	저자명 때로는 필명을 붙인다.	31A. 표목의 기본으로서 개인의 본명이나 필명, 별명, 귀족의 칭호, 종교상의 이름, 두문자어로 인명 선정.	저자기본기입
	연대 (생몰년, 상연 등)	43. 생년몰은 해당표목이 그밖의 방식으로 다른 표목과 동일할 경우에 표목의 마지막 요소로서 부기.	
서 명	본서명 기입	1B1. 본서명 기입	
	서명이 없는 경우 새로운 서명을 기입한다.	1B6. 각괄호로 묶어 서명을 만들고 주기를 작성	오늘날의 보충표제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저작연대	4E1. 발행년, 배포년 기재	판차사항
	저작사정, 작품진위, 용어, 작품 평론	7. 주기사항	일반주기사항
저작의 권수·행수	자료의 행수 기록	5B. 자료의 수량	형태기술사항

〈표 6〉 Pinakes와 현대 목록의 형태 및 특성 비교

비교요소 \ 목록	Pinakes	현대 목록	비 고
목록의 형태	권자본 혹은 책자형	온라인목록	Pinakes는 책자형 목록의 근거가 된다.
기록매체	파피루스	모든 기록 매체	
기재형식	전기적·산문식	사항별 기재형식	
주제구분	12 구분	10진식, 열거식	
목록(서지)의 종류	저자명목록, 분류목록, 장서목록, 주제서지	OPAC	
목록의 기능	재산목록의 기능 이용·검색의 기능	소장 및 접근	
기술 데이터 및 기재 순서	저자사항 서명사항 참고사항 저작의 행수	서명저자사항, 판차사항, 발행사항 형태기술사항 주기사항	오늘날의 기재 내용과 순서가 유사하며 기본적인 규칙 또한 진다.

것으로 평가받는 근거이다.

다음은 Alexandria 시대의 Pinakes가 지닌 형태적인 특성과 현대 목록의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상기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Pinakes는 목록의 형태, 기록매체, 기재형식, 목록의 종류, 목록의 기능이나 기술 데이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목록의 역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Pinakes가 기록매체나 기재형식 등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목록과 크게 상이한 점이 없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본다면 Pinakes가 재산적 가치입장에서 관리된 목록뿐만 아니라 이용과 검색의 기능 측면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inakes는 목록사적인 입장에서 최초의

목록실체로서 인정받고 이후 도서관 목록형식의 효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Pinakes와 현재의 도서관 목록을 기술형식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목록은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버린 느낌이다. 이용자가 목록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일정한 형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Callimachus의 Pinakes는 찾는 목록임과 동시에 읽는 목록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산문적 목록은 현재의 목록자가 보면 자유롭게 기술한다는 면에서 부러운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날 목록에는 검색 및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목록자의 주관이 극도로 제한되고 목록이 객관화, 형식화 및 표준화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여하간 Pinakes는 다른 고대 목록과는 달리 저자, 서명, 주제 등 다양한 검색 접근점과 일련의 배열원칙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목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Pinakes의 형식에 있어서 오늘날 목록과 상이한 점이 있을지라도 원리적으로는 현재의 목록과 극히 유사하다. 이 같은 정교한 목록이 2000년 전에 연구되었다는 것은 목록법 역사상 최초로 가장 완벽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목록사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allimachus의 Pinakes는 서지의 등장 초기에 흥미로운 기술 테이터를 제시했고, 목록에 대해 문헌의 어떠한 정보가 중요하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목록발달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4 배열체계

Pinakes 목록에서의 배열체계는 분류순에 따랐고 동일분류 내에서는 다시 세구분하여 저자명의 알파벳순이나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였지만, 비극이나 희극의 상연극 같은 것은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즉, 각 주제구분 하에서 문헌의 배열은 주제에 따라서 2차 배열이 약간 달랐다. 저자배열에서 예를 들면, 'Home와 같이 작품이 많은 저자에 관해서는 첫째로 작품이 확인된 것, 두 번째로는 추정된

작품이나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 주석과 함께 쓰여져 배열'되고 있었다.

이렇게 Pinakes의 배열체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추측되며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져 배열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목록의 형태가 OPAC으로 변환되면서 목록의 배열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카드목록 당시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Alexandria 당시는 문헌학의 창조 시대이기도 하고 책자형 목록에서는 중간 삽입불능과 같은 목록기술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배열은 한층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Pinakes에는 대략의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배열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차 배열은 분류순에 따랐으며, 동일 분류일 때 즉, 제2차 배열은 저자의 알파벳순 또는 시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저자의 알파벳순에 대해서 사료단편에 나오는 저자가 A H M Φ(Ph)와 같이 배열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일부는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잘 알지 못하지만 대략 이와 같이 추측할 수 있다.

또 저자의 연대순이 어떠한 저자에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치는 않지만 추측한다면 저자를 단순한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기 보다는 역사적인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적절한 철학자, 시인의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추측에 근거가 되는 것은 Pinakes 각 장에 기재된 'Tables and Register of dramatic

poets chronologically from the earliest'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저자의 시대순 배열은 오늘날에도 분류상 철학자와 문학자로 사용되고 있고, 저자의 생년을 분류기호에 포함시키는 Ranganathan의 Colon분류와 같은 철저한 형태이다.

제3차 배열인 서명순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Milkau의 핸드북'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동일저자의 작품은 보통 서명 최초 문자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단어에 의해 배열된다. 2) 그 저작의 배열순서가 예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그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와 같은 Pinakes의 배열원리는 오늘날 분류목록의 배열원리와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고, 분류, 저자, 서명의 목록원형이 이미 Pinakes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Pinakes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명확해진다. 이것은 오늘날의 인명사전과 같을 것이다. Pinaeks를 펼치면 우선 최초로 시인만이 그룹화되고, 기입의 상단에 시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시인이름에 이어서 시인의 약력과 다음에 작품이 기재되고, 작품기재 순서는 서명의 주요 어순이나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따를 것이며, 서명에는 저작의 최초 어구와 권수, 행수가 기록되면서 도서의 특징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시인이 끝나면, 다음 시인이 시작되는 Pinakes를 추측해 볼 수 있다.

5. 결론

결론으로서 Callimachus의 Pinakes 목록의 의의 및 평가를 대신하고자 한다. Pinakes는 "서구문명이 얻은 최초의 도서관목록이고, 그 의의는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Gutenberg의 『42행 성서』에 필적"하는 것이라는 최대의 찬사를 받고 있다. 또 목록법으로서도 Pinakes는 "오늘날 목록의 선구적 기법이 되는 것이고 인류는 목록정전을 얻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호의적인 평가에 대하여 비판적인 학자도 있다. Anne Holmes는 Pinakes가 "Alexandria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것은 틀림 없지만 장서목록이 아니라 오히려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할 고전자료의 리스트 즉, 고전연구의 서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Pfeiffer도 이 점에 관해서 Pinakes가 장서목록이었던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Pinakes를 편찬한 Callimachus의 기법이 그 이전에는 없었을 만큼 정비된 것이고, 그 기법은 Pinakes이후 유사한 종류의 문헌목록작성의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Pinakes가 어떤 유형의 목록인지 간에, 도서관의 목록이 언제 어떠한 상황아래에서도 항상 완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며, 목록이나 분류기법은 시대마다 도서관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Pinakes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 기법도 그렇지만 오히려 목록을 만들어 낸 상황이다. Callimachus의 Pinakes 편찬 의도는 Alexandria 도서관에 많은 문헌이 수집되어 도서관에 어떤 문헌이 있는지 알기 위해 정리, 기록하여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어떤 시대에서나 지식의 전달·탐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구상이다.

Callimachus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를 두어 자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고안·연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Pinakes는 장서목록이었다고 해야 하지만, 장서목록의 여부를 떠나서 Pinakes의 중요성과 Callimachus의 발상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Pinakes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1200년 이후의 사전 Suidas과 같은 기록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Pinakes는 Callimachus의 제자들에게 계승되었다. Alexandria 도서관 관장의 한사람이던 Byzantine의 Aristphanes는 “Callimachus의 Pinakes 보유판이라고 할 만한 문헌목록을 작성했고, Pergamon 도서관에서도 같은 종류의 목록이 있었다”고 조사되고 있다.

Alexandria 도서관과 Pergamon 도서관 이후 도서관의 역사는 로마의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Augustinus의 공공도서관(B.C. 33-28경)이나 Trajanus의 Ulpia 도서관과 같은 유명한 도서관을 비롯하여 몇 개의 도서관이 로마에 세워졌다. 로마 도서관은 모두 Pergamon 도서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

나 목록이 존재했는지의 여부나 어떤 목록법인지 그리고 Pinakes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고대 시대의 장서통정에 관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 안되는 기록으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만, 서지통정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Pinakes의 목록법이 그 뒤 어떻게 계승되었는가하는 문제를 로마시대와 중세초기의 도서관사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해 보면 “Pinakes 기법이 ‘원래 형태’로 후세에 전해지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Pinakes 목록법이 로마의 도서관과 중세의 도서관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세에서의 체계 서지가 도서관목록 발달로 이어지는 중세 후반 목록법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연결고리가 어디서 단절되었는지 또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것은 도서·도서관사 내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문화의 전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마에도 도서관이 세워지고 일부 도서관은 학자나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다. 그러나 Alexandria 도서관과는 달리 로마에서의 초기 도서관 건설은 국가 전체의 사업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로마 도서관에서는 Pinakes와 같은 목록의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Alexandria 도서관처럼 전 세계의 모든 문헌을 수집한다는 도서관의 목표가 없었

던 로마의 도서관에서는 Pinakes 정도의 목록법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서관 활동은 문화의 융성과정과 문화를 지탱하는 국가기반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건국 초기의 로마는 이러한 측면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Pinakes의 귀중한 목록원리가 중세가 되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단순한 서기목록 및 재산목록과 같은 보존중심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다. 단 이 부활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첫째, 의식적으로 Callimachus의 사고를 수용한 것인지, 둘째, 목록에 대한 Callimachus적 사고가 서양의 잠재적인 의식의 전통인지 그 역사적 연결에 대해서는 더욱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Pinakes를 통해 오늘날 목록의 원리 특히 동양의 서명기본저록에 대한 서양의 저자기본저록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Pinakes 이후 1,000년 이상 Pinakes에 필적할 정도의 목록이 편찬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목록법의 전개도 현저하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Pinakes 목록의 기술형식은 오늘날의 목록데이터에까지 영향을 주어 기본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저자기본저록, 서명사항, 대조사항, 주기사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Pinakes는 도서관 목록형식의 효시가 되었다고 평가받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석, 1995, 『자료목록학』, 제3증보판, 대구: 계명대출판부.
- 김명옥, 1989,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
- 김명옥, 1993, 서양의 자료분류법의 발달과정—고대에서 해리스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1993, 12): 191-192.
- 김세익, 1992, 『도서·인쇄·도서관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 朴俊植, 1986, 古代圖書館史의 再照明: 메소포타미아 地域을 중심으로, 『도서관』, (41)5: 17-18.
- 윤희운, 1998, 『정보자료분류론: 이론과 실제』, 대구: 태일출판사.
- 全明淑, 鄭然卿 譯, 1991, 『西洋圖書館史』, 서울: 지문사.
- 정필모, 1964, 『도서분류법개론』, 서울: 송의사.
- 정필모, 1990, 『문헌정보학원론』, 서울: 구미무역.
- 정필모, 오동근 공저, 1991, 『도서관문화사』, 서울: 구미무역.
- 최달현, 이창수 공저, 1998, 『정보자료의 분류』,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공저, 1998,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 丸山昭二郎, 岡用靖, 澁谷加彦 共著, 1986, 『主題組織法概論: 情報社會の分類』, 東京: 紀伊國屋.
- 副島秀夫, 1987, Kallimachos의 Pinakes とそ

- の現代的意義, 『圖書館學』, 18(1971): 5-14.
- 栗野頼之祐, 1942, アレクサンドリア圖書館長錄の研究, 『史學雜誌』, 53(6): 677-733.
- 點鸛修, 芦屋清, 1984, 『資料分類法』, 東京: 東京書籍.
- 澁川雅俊, 1985, 『目録の歴史』, 東京: 勁草書房.
- Blum, Rudolf, 1991, *Kallimachos : The Alexandrian Library and the Origins of Bibliography*.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Han H. Wellisch, Madison: Wisconsin.
- Casson, Lionel, 2001,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Yale University.
- Chan, Lois Mai, 1994,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 an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Clark, J. W., 1909, *The care of books : an essa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and their fittings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ssel, A., 1955, *A History of Libraries*, translated, with supplementary material by Reuben Peiss, Reuben Peiss memorial edition, New Brunswick: The Scarecrow Press.
- Irwin, Raymond, 1956, "Callimachus : Studies in the History of Libraries-IX," *The Library Association Record*, (May 1956): 168-173.
- Jackson, Sidney L., 1974,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the West: A brief history*, New York: McGraw-Hill.
- Johnson, Elmer D., 1965, *A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London: The Scarecrow Press.
- Kramer, S. N., 1981, *History begins at Sumer: thirty-nine-first in man's recorded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air, A. W., 1955, *Callimachus : Hymns and Epigrams, Lycophron, Arati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kau, Fritzo, 1957, Georg Leyh, *Handbuch Bibliothekswissenschaft*, Wiesbaden: Harrassowitz.
- Miner, Afton M., & A. Garr Cranney, 1990, "The Alexandrian Library of Antiquity",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35th, Atlanta, GA).
- Norris, Dorothy May, 1939, *A History of Cataloguing and Cataloguing Methods 100-1850: With an Introductory Survey of Ancient Times*, London: Grafton & Co.
- Parsons, E. A., 1967, *The Alexandrian Library : Glory of The Hellenic World*,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 Pfeiffer, Rodolf, 1978,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the Hellenistic age*, Oxford: Clarendon Press,
- Richardson, Ernest Cushing, 1964, *Classification : Theoretical and Practical*, Hamden: The Shoe String Press,
- Schmidt, Friedrich, 1922, *Die Pinakes des Callimachos*, Berlin,
- Shubert, Steven Blake, "The Oriental Origins of the Alexandrian Library," *Libri*, 43(2): 138-150,
- Smith, W. A, 1971,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biography and mythology*, New York: AMS Press,
- Thomson, James W, 1940, *Ancient Libraries*,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Witty, Francis J, 1958, "The Pinakes of Callimachus," *Library Quarterly*, 28 (1958): 133-136,